

금리 노마드족 '희소식'... 중·저신용자 대출 늘린다

〈유목민〉

금융위, 중·저신용자 비중 ↑
인터넷은행, 중금리 대출 확대
저축은행, 법정최고금리 연 20%

중·저신용자도 더 낮은 금리를 찾아 나서는 '금리 노마드' 시대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저축은행도 고금리를 낮춰 대출을 시행하고 있어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을 대상으로 오는 2023년까지 전체 신용대출에서 중금리 대출을 통해 중·저신용자 비중을 30%까지 확대해 달라고 권고했다. 중금리 대출은 중·저신용자(기존 4등급 이하, 신용점수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10% 안팎의 개인 신용대출을 말한다.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0.2%, 21.4%다. 두 회사의 평균치는 현재 12.1%로 은행의 절반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공급한 보증부 정책상품 사잇돌 대출 또한 66.4%가 1~3등급인 고신용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확대계획〉 (단위:%)

은행	2020년말	2021년(계획)	2020년(목표)	2023년(목표)
카카오뱅크	10.2	20.8	25.0	30.0
케이뱅크	21.4	21.5	25.0	32.0
토스뱅크		34.9	42.0	44.0



/금융위·뉴스시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중금리 대출 상품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사잇돌 대출 프로그램 비중이 전체 대출의 91.5%에 달하고 그 대상 고신용자 위주"라며 "중금리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신용자 집중 비중은 매우 높

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말 기준 1조4380억원 규모인 중·저신용자 대출잔액을 연말까지 3조1982억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케이뱅크도 지난해 말 5852억원이던 중·저신용자 대출잔액을 올해 말 1조2084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영업을 시작할 토스뱅크도

중·저신용자에게 전체대출의 34.9%를 공급하고 그다음해에는 42% 이상으로 비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저신용자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확대되는 셈이다.

◆저축은행, 하반기 중금리 대출비중 확대

저축은행도 중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저축은행에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1.1% 이내로 조절하고, 중금리 대출과 정책 금융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5.4%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주 고객층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에 집중할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저축은행은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37개사 중 연 20% 이하 금리로 대출해준 비중은 평균 13%다. 삼호저축은행이 95.15%로 가장 많고 상상인플러스, 청주저축은행이 각각 93%, 89%로 뒤를 이었다. 이들 저축은행의 경우 2018년 11월 이후 진행된

고금리 대출을 연 20%로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연 20%를 초과해 대출을 상환하고 있던 차주에게는 30일 이내 통지하고, 대출금리를 20%이내로 낮춰야 한다"며 "저축은행의 20% 고금리대출은 1~2년 사이에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가계신용대출 상품을 취급 중인 37개 저축은행 가운데 22곳은 20%대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17곳에서 5곳이 확대된 셈이다. JT저축은행은 올 초 연 20% 초과대출중단을 선언했다. 여기에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비롯해 NH·우리금융·하나저축은행 등 금융지주계열도 고금리대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통상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의 신용을 평가해 20% 이내 신용대출 상품과 중금리대출상품을 추천해주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비중을 줄일 것을 유도하고 있어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한 중금리 대출비중은 전년 대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올-디지털 구현 위해 IT에 5000억 투자”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우수 사업장 차세대시스템 점검

NH농협금융지주 손병환 회장이 디지털 사업 목표인 '고객이 체감하는 올 디지털(All-Digital)' 구현을 위해 직접 나섰다.

농협금융은 1일 손 회장이 계열사의 DT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 조직과 임직원을 격려하는 디지털 현장경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매일 농협금융 계열사 중 DT추진 우수 사업장을 찾아 현장 직원과 고객 의견을 청취하고, 그룹 전략에 반영키로 했다. 농협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 요소를 해소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여의도 NH농협캐피탈 본사에서 열린 차세대 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왼쪽 네번째)과 박태선 농협캐피탈 대표(세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

첫번째 디지털 현장경영 계열사로는 NH농협캐피탈을 택했다.

농협캐피탈은 약 3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지난 2월 말 오픈했으며, 3개월에 걸친 안정화 작업을 마치고 지난달 31일 기념행사를 가졌다.

농협캐피탈은 업계 최초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IT시스템을

구축해 업권 최고 수준의 IT서비스 환경을 갖추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농협금융은 소비자보호 및 디지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약 5000억원 IT 투자를 추진한다. 은행 3200억원, 생명 484억원, 증권 469억원 등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보험사 대출채권 255조... 2.1조 증가

가계대출 1.8조 늘어

보험사의 대출채권이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이 주로 늘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55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124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조8000억원, 기업대출이 130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4000억원 늘었다.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18%로 전분기 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이 0.34%로 전분기 말 대비

0.04%포인트 하락한 반면 기업대출이 0.11%로 전분기 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0.17%로 전분기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이 0.16%로 전분기 말 대비 0.01%포인트 하락한 반면 기업대출이 0.17%로 전분기 말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건전성 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에 대응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KB금융, 2000억 뉴딜인프라 펀드 조성

신재생에너지 등 투자

KB금융그룹은 총 2000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인프라 펀드인 'KB 뉴딜 인프라 전문투자형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을 본격적으로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KB 뉴딜 인프라 펀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뿐 아니라 환경시설,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등 뉴딜 인프라 분야 전반에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다.

KB금융은 오는 2025년까지 10조원의 한국판 뉴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목표 3조2000억원 중 지난 4월 말 기준 2조5000억원의 성과를 거둬 목표

대비 78%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KB 뉴딜 인프라 펀드' 출시와 투자를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에 그룹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KB자산운용은 한국성장금융과 산업은행에서 추진한 '2021년 정책형 뉴딜펀드(인프라)'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바 있다. 앵커투자자인 KB국민은행을 포함해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 푸르덴셜생명, KB자산운용 등 KB금융 그룹이 총 1031억원을 투자했다. 정책자금으로 한국성장금융 및 산업은행이 369억원, 국내 대형 보험사 2개사가 600억원을 투자해 총 2000억원 규모로 모집이 완료됐다. /안상미 기자

한화생명

임직원 '기브 그린' 캠페인

한화생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한화생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와 '기브 그린(GIVE GREEN)'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한화생명빌딩에서 'GIVE GREEN' 캠페인 기증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이 기증한 물품 약 3000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밀알복지재단의 '굿윌스토어' 대점점에 전달했다.

'GIVE GREEN' 캠페인은 자원 재 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백지연 기자

생·손보험, 2021년도 우수인증설계사 선정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가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생손보 협회는 14번째 우수인증설계사를 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우수인증설계사 선정은 2008년부터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다.

양 협회는 지난 4~5월 회사로부터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신청 접수 및 인증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생보업계 1만3660명, 손보업계 1만9097명의 우수인증설계사를 각각 인증했다. 인증 기간은 이날부터 1년 동안 부여한다.

올해 생보업계 인증인원은 전체 대상자의 14.3%에 해당하는 1만3660명으로

전년 대비 0.7%포인트(p) 감소했다.

생보업계 우수인증설계사의 13회차 및 25회차 유지율은 각각 97.9%, 92.4%를 달성했다. 이는 생보사 평균인 84.8%, 61.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손보업계의 경우 판매채널 다변화, 시장포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년 대비 5.6% 증가한 역대 최대 인원이 우수인증설계사로 꼽혔다.

같은 기간 손보업계의 우수인증설계사의 13회차 유지율도 전년 대비 0.5%p 상승한 96.7%를 기록했다. 손보업계 설계사 전원의 지난해 불완전판매도 0건에 달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